

[열려라 도서관_시즌2] 공통1. 도서관 예절과 이용규칙

도서관은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도서관에서 지켜야할 약속은 “도티켓”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도서관에티켓 6가지

첫 번째,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핸드폰은 매너모드로 하고 통화는 밖에서!! 자료실 내에서는 조용히! 꼭 필요한 경우는 귓속말로! 책 읽는 소리는 듣기 좋지만 휴대폰의 가지각색 벨소리와 통화소리는 책을 읽는데 방해가 됩니다.

두 번째, 도서관 자료는 소중히 다뤄주어야 합니다.

책을 읽다가 너무 재미있어서 책을 찢거나, 책에 낙서 한다면 나 다음에 책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떨지를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책읽기에도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도서관에서 소중히 다뤄야 할 것에는 책 외에도 도서관에 있는 책상, 의자 등 각종 시설도 포함됩니다. 이것들은 모두 함께 이용하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세 번째, 도서관 이용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자주 이용하는 도서관의 이용시간이나 대출권수 및 기간을 알고 있나요? 책이나 DVD, 잡지 등 도서관에 있는 모든 자료는 정해진 대출기간이 있고 도서관마다 대출기간은 다릅니다. 도서관은 나 혼자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는 걸 생각한다면 꼭 지켜야겠죠?

그럼 우리 도서관의 이용시간, 대출권수와 기간을 알아볼까요?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시부터 *시까지입니다. *권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기간은 **일입니다. 휴관일은 *****입니다.-각 도서관마다 규정이 다르므로 별 표시를 괄호로 하여 화면에 문장을 띄어주면 수업 시 학생들에게 설명하거나 학생들이 직접 알아 맞춰보는 방식으로 설명 진행함.)

그리고 책을 빌릴 때는 대출증이 필요하니까 반드시 가져와야 합니다. 원하는 책이 없으면 도서관 사서선생님께 신청하거나 예약을 할 수도 있지요.

네 번째, 옆 사람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개인적인 공부는 열람실을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도서관에서 음식물을 먹지말자.

도서관에서 오랫동안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다보면 배가 고플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음식물을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와 소리, 심지어 음식물이 책에 떨어져 책이 더러워지고 독서에 방해가 됩니다.

여섯 번째, 자료실 내에서 이용한 자료는 제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간혹 ‘다음에 와서 또 봐야지’란 생각으로 제자리에 두지 않으면 그 책을 찾기는 어렵겠죠. 만약 서가 위치를 모른다면 북트럭에 놓아둡니다.

(2) 사서

그럼 우리가 도서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서선생님입니다. 사서는 책을 어떻게 분류할지 생각하고,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책과 도서관 이용법을 설명해 주고, 자료조사를 도와주는 등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서는 2000년 전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직업 가운데 하나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시는 “취급하다, 다루다”, 쓰는 “책”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서는 책을 다루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겠죠.

(3) 책과 관련한 용어

책과 관련해서 도서관에서 쓰는 말들도 아주 많아요. 책을 빌리는 것을 대출이라고 하죠? 반대로 다 읽은 책을 도서관에 돌려주는 것을 반납이라고 합니다. 때론 다 읽지 못한 책을 더 읽기 위해 반납을 뒤로 미루는 것을 연기라고 해요. 그리고 정해진 기간 내에 책을 도서관에 돌려주지 못한 경우를 연체라고 하는데요. 연체를 하게 되면 일정기간 책을 못 빌리거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너무 어렵나요? 하지만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말을 알면 도서관 규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제 도서관을 이용할 때 6가지 도서관 에티켓을 더 잘 지킬 수 있겠죠?